



고창군이 고창전통시장을 특색 있는 명품 시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 고창전통시장 명품화 추진

### 군, 직거래장터 · 특화상품 개발 · 협동조합 등 운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전통시장을 특색 있는 명품 시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유통환경 등 변화로 낙후되어 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고창군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고창전통시장이 선정돼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민친화형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했다.

고창전통시장은 지난해 6월까지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시장'을 비전으로 공동판매장 조성 및 직거래장터 운영, 시장투어 관광상품 개발, 특화상품(청보리빵, 복분자장어피어 등)개발과 협동조합 운영, 시장 스토리텔링(고창음성, 등리 신재료 연계), 상품진열 및 친절 교육 등 총 11가지 주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과 진입로 개설, 통로바닥 정비, 소방시설 설치 등 지난 10여 년 동안 총 64억 원을 투자해 시설현대

화사업을 추진했고, 상인대학 운영과 장비 보급 등 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를 도모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고객 유입을 위해 매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다문화시장가요제, 농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명절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해 주민친화형 시장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고창전통시장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6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지방자치단체' 부문 중소기업청장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여기에 인주하지 않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다음 단계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겨울인 요즘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과 고창전통시장 상인회는 '2017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신선 전 준비사항을 차근차근 밟아가며 사업 확장을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축제·관광자원을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전통시장 내에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즐거거리·살거리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3년간 최대 18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내용은 크게 4가지로, 디자인 ICT(정보통신기술)융합, 자생력 강화(상인교육 및 협동조합, 동아리 등 운영 지원), 이벤트·홍보, 기반설비(상장물 등 조성) 등을 추진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바탕으로 올해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선정을 통해 고창군이 자랑하는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연계하는 특화시장을 조성하겠다"며 "고창전통시장을 명품시장으로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치즈홍보탑 랜드마크 자리매김

### 이벤트공간 · 키오스크시설 · 전망대로 이용

전북도와 임실군은 '치즈를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 다양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조형물, 치즈 홍보탑, 풀러미끄럼틀 등을 설치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임실치즈 홍보탑은 치즈모양을 형상화한 17m 높이로 2층에는 이벤트 공간, 치즈제조과정을 설명하는 키오스크 시설과 3층은 전망대로 이용된다.

특히 치즈테마파크의 자랑인 드림은 초원, 스위스풍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내고 있으며 치즈테마파크와 치

즈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치즈테마파크 체험관광객은 지난 2013년 대비 172% 성장(2013년 89,948명 → 2016년 155,062명)했으며 매출액 또한 148%증가(2014년 1,397백만원 → 2016년 2,065백만원)해 치즈체험관광 1번지로 발돋움했다.

군 관계자는 "치즈 홍보탑은 치즈 생산과정을 이해하는 학습 공간과 휴식공간인 동시에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이 상호 상생과 협력으로 치즈 관광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특이점

### 임실군, 10kg 슈퍼 닭 화재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임실군에서 10kg이 넘는 '슈퍼 닭'이 발견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신덕면 신석용씨가 키우고 있는 육계품종으로 생육을 촉진하는 첨가제를 먹여 키운 결과 일반 닭 보다 4~5배 큰 '슈퍼 닭'으로 성장했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임실군은 AI 피해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커다란 닭이 발견됨을 길조라 여기고 반가워하고 있다.

마을 주민은 "닭은 어두운 밤 빛이 밝아오는 아침을 알리고 만물을 깨우는 동물이기 때문에 희망을 의미한다"며 "올해는 마을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경찰, 농수로 빠진 송아지 구출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 사매파출소는 지난 10일 수요일 09:38경 덕과면 용산리에 거주하는 A씨 축사에서 전날태어난지 1주일 된 송아지가 축사를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덕과파출소 지원근무에 나선 박홍규 경위, 김영철 경사는 야산 및 농로 주변을 약 1시간 동안 수색하여 농수로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한 송아지를 발견하고 직접 꺼내어 주인에게 무사히 인계하였다.

A씨는 "경찰 덕택에 300만원 상당의 송아지를 추운 날씨에 찾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박형재 사매파출소장은 "항상 가까이 경찰관이 있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 미래 30년 위한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 건강장수 테마로 발전 전략 · 연구성 공유 등 논의

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미래 30년 순창발전을 위한 길 찾기에 본격 나섰다.

지난 10일 건강장수연구소 회의실에서 건강, 식품, 농업관련 전문가 30여명이 모여 '순창 미래 30년을 위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충북도립대학 백승화 교수, 전북대학교 이장상 교수,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이상천 박사, 전북대학교 김대기, 진종식 교수, 진안홍삼연구소 최경민 박사, 우석대학교 임재운 교수, 마인드 경영컨설팅 최훈환 대표, (주)팍매 최태환 대표, 한국식품연구원 진

원장 관대영 박사 등 다방면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건강장수를 테마로 한 순창의 미래 발전전략과 연구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우석대학교 임재운 교수와 전북대 한약자임화과 진종식 교수는 '순창산 아로니아를 중심으로 한 농특산물에서 항당뇨 효과와 기억력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연구 효과가 발견됐다'면서 "지속적 연구를 통해 발전 시키고 특히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흡소공과 제약회사와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산업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농가들은 개별인정원료의 공급

처로서 역할을 확대하면 지역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 (주)팍매 최태환 대표는 '명확한 타겟! 지원 연계 프로그램'이란 주제로 연구소에서 개발한 건강식단과 특히 교육체험프로그램의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 발표해 체험프로그램의 영역확대를 주장했다.

건강장수연구소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당뇨예방 및 교육프로그램, 당뇨예방식단 및 연구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날 제안된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해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순창을 대한민국 건강과 힐링의 거점으로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용전마을 농가 햇감자 수확 '한창'

24절기 중 가장 추다는 소한이 지나 겨울의 한중간에 와 있는 요즘 남원 용전마을 농가에서는 햇감자 수확이 한창이다.

이 시기 햇감자는 지난해 9월에 잠식한 것으로 노지감자보다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다음 작기 준비를 빨리 할 수 있어 앞으로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절감자는 토양과 환경관리, 씨감자에 의해 농사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곳 춘향골 금지면은 퇴적 평야지 미사토양으로서 배수가 잘되고, 오랜 경험을 지닌 농업인에 의해 시설환경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씨감자는 남원 고평지 지역에서 전년

도 6월에 수확하여 휴면이 완전히 타파된 춘향씨감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조기수확이 가능하여 한 겨울철에도 햇감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겨울철 햇감자는 수확 후 저장 판매하는 감자에 비해 아삭한 식감이 있어 저장감자의 2~3배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한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는 시설감자 농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1월 10일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며, 춘향씨감자 생산 농업인에게도 현장지도도를 수시로 실시하여 고품질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청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

###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제7대 임실군청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이 최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심민 군수를 비롯해 문영두 군의장, 이연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전국시군구연맹위원장, 최일호 전북연맹위원장, 단위노동조합위원장 및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출범선언을 시작으로 조합기 입장, 연혁 및 경과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제6대 정덕호 노동조합위원장과 정선 사무처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행만 위원장은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조합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합원 모두가 관심과 참여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노동조합과 집행부가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7대 임실군청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뜻을 우선적으로 받들

어 '공무원이 중심인 노동조합! 일할 맛 나는 직장!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슬로건으로 희망찬 첫발을 내딛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찾아가는 출장검진 실시

### 3월 17일까지 11개 읍면

순창군이 오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11개 읍면 지역을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실시해 군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관)은 일반 건강검진과 국가 안 검진을 동시에 실시해 암의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대상은 만 40(1977년생)세 이상의 흡수년 출생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이 해당된다.

검진항목은 진찰 및 문진,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간기능,신장질환,이상지질혈증,빈혈등), 구강검진 등 21개 검진항목을 실시하며, 암검진(위

암,대장암,유방암)의 경우 전수열린병원과 협진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자중경부암의 경우는 순창군보건의료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상담 및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 안 검진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5대암)에게는 최대 3년간 의료비 일부가 지원된다.

군은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며, 검진시간은 오전 8시 30분 부터 12시까지 이뤄진다.

한편 출장 검진은 12일 인계면 호계리를 시작으로 진행되며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계 전화 650-5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농협, 닭고기 가공품 사은품 공급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지부장 한재현)는 닭고기 가공품(닭가슴살 육포)을 공급하여 대고객 사은품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은품 공급은 NH농협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들에게 국산 닭고기로 만든 제품을 나누어 줌으로써 축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AI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처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한재현 지부장은 "최근 AI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닭고기 가공품을 사은품으로 활용하는 행사를 마련하였다"면서, "현재 농협중앙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AI확산방지와 피해가 금융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